

서구, 주민 중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성과 빛났다

‘마을 BI’ 사업 3년 선순환 구조…생활정부 실현
마을화페·상생나눔마켓 등 다양한 활동 공유도

광주 서구가 우수사례 확산·협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18일 서구에 따르면 주민 중심의 생활정부 실현을 위한 ‘마을 BI (Brand Identity)’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서구는 올해 세근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가 배출한 전문지원단과 연계해 공동체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공동체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또 지난 17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18개 동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주민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경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서류심

사를 통과한 5개 공동체가 우수사례를 발표한 뒤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이 최종 결정됐다. 대상에는 ‘화정1동 주민자치회’가 선정됐다. 이들은 ‘함께 있다. 안전마을’이라는 마을 BI 아래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주민·유관기관 등과 협력, 매주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활동은 물론, 마을안전지도 자료 (DB)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은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금호페스타’ 운영을 비롯해 마을화페, 상생나눔마켓 등 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끈 ‘금호1동 협치네트워크’, 아파트 공동체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친환경 저탄소 실현에 나선 ‘동천1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우수상에는 다양한 요리교실



광주 서구는 지난 17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18개 동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한 ‘버들어머니회’, ‘미소피고 인사하기’ 캠페인 등으로 아파트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한 ‘상무1동 손오공’ 등이

선정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마을공동체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며 “앞으로

도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양 출신 교육계 향우들 고향 발전에 뜻 모아

전남교육청 소속 3명
고향사랑 1000만원 기부

광양 출신 전남교육청 소속 향우 3명이 광양시에 고향사랑의 뜻을 모아 눈길을 끈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출신 교육계 향우인 권형선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도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영욱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등 3명은 최근 1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광양시에 전달했다.

세 향우는 각기 다른 교육 현장에서 수십 년간 봉직하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온 인물들이다.

이들은 “광양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권형선 교육장은 “고향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백도현 교육장은 “광양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욱 정책기획과장은 “작은 정성이라도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광양출신 교육계 향우인 권형선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도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영욱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등 3명은 최근 광양시에 1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강조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바쁜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시면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세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향우와 지역을

잇는 가장 따뜻한 연결고리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광양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2월 12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3만원 상당의 광양 대표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김태균 도의회 의장 ‘자랑스런 도의원상’ 수상

전남상인연합회, 소상공인 지원 의정활동 공로 인정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제4회 전남도 상인의 날’을 맞아 ‘제1회 자랑스런 우리 도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김태균 의장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공로를 전남상인연합회가 높이 평가해 마련한 것이다.

김태균 의장은 “전남상인연합회로부터 도의원 최초로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의미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태균 의장은 ‘전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



으로 ‘소상공인 신용보증료 이차보전 지원 확대’, ‘착한 선결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등 민생경제 지원에 힘써왔다. 아울러 지난 17일, 전남도청 사거리에 서 ‘지역경제 활성화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문희주 광주교통공사 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체계적인 에너지 감축 성과…한국에너지대상 영예

광주교통공사 문희주 기술운영처장이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7회를 맞는 한국에너지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부문 시상식이다. 문 처장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포

함한 다양한 대외 연구개발 사업에 활발히 참여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활동 등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전사적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며 공사 친환경 경영 실천 및 탄소 중립 도시 광주 구현에 일익을 담당했다.

문 처장은 “공사 전 임직원이 친환경 에너지 경영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성



광주교통공사 문희주 기술운영처장이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과를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녹색 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조선대병원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수상

술기 훈련 장려·특별상 영예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25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술기 훈련 부문 장려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의료 대응능력 향상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16개 시도에서 160명이 참가했다.

대회에서는 재난 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른 실제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보건소·재난거점병원·소방이 팀 단위로 구성돼 분류반, 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 등 역할을 수행하며 평가를 받았다.

조선대병원은 술기 훈련 부문 장려상 (국립중앙의료원장상), 특별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방사능 연합훈련, 신종 감염병 대응훈련 등 다양한 모의훈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2025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술기 훈련 부문 장려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련을 꾸준히 실시하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

도록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지방우정청은 최근 여수 거문도 지역의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전남지방우정청, 소외이웃 사랑 실천

여수 거문도 20가구에 후원물품 전달

전남지방우정청은 최근 여수 거문도 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달 완도 섬지역 3곳에 후원물품을 기부한 데 이은 두 번째 나눔 활동으로, 도서지역 생활환경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은 여수 거문도를 찾아 독거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 섬마을 소외이웃 20가구에 이불, 식료품, 생필품 등 4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김기홍 청장 직무대리는 “작은 정성이지만 섬지역 소외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